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

BIBLE FORUM FOR THE Next CHURCH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11월 7일(목)
저녁 7시 30분



디도서에서 배운 복음, 목회, 설교

강의자료

박 대 영

광주소명교회 책임목사
성서유니온 「목상과 설교」 편집장
영국 Capernwray Bible School,
London Bible College
연세대학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www.mimokwon.com

디도서에서 배운 복음, 목회, 설교

미래목회연구원(2019.11.7.)

(박대영, 광주소명교회 책임목사, SU <목상과 설교> 편집장)

1. 디도서 저술에 대하여

1.1. 집필 동기

- 1) 안식월-7년의 목회를 돌아보는 기준
 - 디도서를 강해하며 목회를 시작하였다
 - 7년 후 나의 목회는 이 책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 2) 두란노와의 기획의 결과물
 - 석의가 있는 설교집의 가능성
 - 설교 글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설교집
 - 목상이 있는 설교집의 가능성
 - 읽는 설교로서 일반 청중들을 돕는 설교집
- cf) 야고보서

1.2. 왜 디도서인가?

- 1) 디모데전후서와 비교할 때 목회서신인 디도서를 다룬 책들이 많지 않다.
 - 디모데전서와의 유사성 때문에, 마치 에베소서와의 유사성 때문에 골로새서가 덜 다뤄지듯이
- 2)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 적합한 책이기 때문이다
 -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를 향한 권면
 - 짧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책
 - 이론적이면서도 대단히 적용적인 함의가 많은 책

1.3. 디도서에서 주목해야 할 주제들

- 1) 디도서가 말하는 복음(가르침)의 중요성
- 2) 디도서가 말하는 교회상
- 3) 디도서가 말하는 지도자상
- 4) 디도서가 말하는 믿음과 선한 행위의 관계
- 5) 디도서가 말하는 성도다움
- 6) 디도서가 말하는 세상과의 관계
- 7) 디도서가 말하는 거짓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
- 8) 디도서가 말하는 지도자들 간의 관계
- 9) 디도서가 말하는 하나님
- 10) 디도서가 말하는 구성원들간의 관계
- 11) 디도서가 말하는 의, 믿음의 독특함

1.4. 디도서의 핵심 용어들

- 1)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 2) 진리, 믿음(체계화된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바른 교훈, 복음
- 3) 장로
- 4) 선, 선행, 선한 일
- 5) 신중함, 경건, 절제

- 6) 행위, 행함, 의로운 행위
- 7) 본
- 8) 책망할 것이 없는
- 9) 구원하다, 속량하시다. 깨끗하게 하시다
- 10) 영생, 영생의 소망
- 11) 어리석은 변론, 이단에 속한 사람, 불법, 순종하지 않은 자,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진리를 배반하는 자

2. 디도서가 말하는 교회(성도), 목회, 목회자

2.1. 바울과 디도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서신, 공동체 회람을 염두에 둔 편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1:4)

cf)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딤후 1:2)

할례를 받은 디모데,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 둘 모두 바울의 영적인 아들, 특히 할례 받지 않았지만, 디도 역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

-중재의 의사: 고린도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바울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그레데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2.2. 바울과 장로의 관계에서

-장로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맡은 바울과 디도

-장로들의 자격

- 1) 바른 가르침 2) 가르치는 능력 3) 본이 되는 교회 안팎의 삶
- 4)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 5) 관대하고 열린 성품 6) 복수 리더십

2.3.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관계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1:10-16)

따라서 참 믿음은 세상과 구별되는 ‘선한’ 행위로 증명되어야 함

-장로와 성도들의 자격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 다 적용되지만, 그레데의 독특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질일 것이다.

-세상을 향한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

-성경적인 교회는 시대와 소통한다. 그들의 세계관을 간파하고 대안적인, 대항적인, 대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2.4. 교회가 세워지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디도서의 강조점)

-지도자와 바른 교훈(복음)과 본

-둘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바른 지도자의 자격은 바른 가르침(복음)에 대한 이해와 삶이다.

- 1) 사도의 임무(1:1-2)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전도로 전한 말씀” “내게 맡기신 전도”
- 2) 장로(1: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 3) 디도(2:15)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3:8). “다툼을 피하라...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하라”(3:9-10)

2.5.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의 상관성

1) 복음과 사도의 사명(1:1-3)

2) 장로의 조건(1:6-9) -->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그릇된 삶(1:10-16)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1:16)

3) 교회 각 계층의 바른 교훈(복음)에 합당한 삶 권면(2:1-10a) --> 1:10b-14 그런 삶의 근거가 되는 복음(하나님의 구원)

4) 2:15-3:2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한 태도 --> 3:3-7 그런 삶의 근거가 되는 복음(하나님의 구원)

2.6.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

- 1)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선한 삶' '선한 일'에 대한 강조가 자주 나온다.
- 2) 지도자와 성도의 태도를 언급할 때 '신중함' '절제' '경건함'을 유독 강조한다.
- 3) 성도의 자격과 지도자의 자격 사이에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장로들의 바른 삶의 이유(1: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바른 삶의 이유(2:10)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2.7. 은혜의 우선성과 여정으로서의 구원

-바른 교회, 바른 일꾼, 바른 교훈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은혜로 함께할 것이니 그들이 포기하지 말고 이 사역을 감당해내라고 당부한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 분명하다.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2.8. 디도서가 제시하는 교회상

- 1)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 산 제물로 드리는 교회

-being, not doing

- 2)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

-relationship, not isolation

- 3)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family, not church member

- 4) ‘일상’으로 예배하는 교회

-daily life, not Sunday

3. 디도서와 묵상, 그리고 설교에 대하여

3.1. 본문과 대결할 때(confronting) 본문의 메시지와 대면할 수 있다(encountering)

-본문을 충분히 장악하고, 본문에 의해 완전히 장악될 만큼 본문 연구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

-학자적 주해에 머물지 말고 목회자는 목회적 석의, 선교사는 선교적 석의가 필요하다.

3.2. 설교의 차별화는 차별화된 묵상에서 나온다.

-묵상은 “본문을 향하여” 설교자가 던지는 질문에서 + 청중의 상황이 던지는 질문에서 + 이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다.

-묵상은 석의과정에서, 적용과정에서, 설교의 구성과정에서 작용한다.

3.3. 차별화된 문장이 차별화된 설교를 낳는다.

-내 방식으로 정의된 단어, 표현된 단어, 숙성된 단어가 ‘들리는’ 설교를 낳는다.

3.4. 설교자의 말

- 1) '문'(文)기 가득한 말

-독서를 통해 성숙하고 문학성을 갖춘 말

- 2) '문'(問)을 거친 말

- 묵상(질문)을 통해 깊어진 말
- 3) '문'(聞)으로 넉넉해진 말
 - 들음을 통해 풍성해진 말
- 4) '문'(門)을 통과한 말
 - 검증을 통해 정확하고 적실해진 말
- 5) '물'(水)기 많은 말
 - 경험(땀과 눈물)을 통해 현실감 있고 사연 많은 말

3.5. 저자로서의 설교자

1) '대필자'.

말라르메

"시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시인은 언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자일 뿐이다."

2) '번역자'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그 때 그 곳 그 사람들에게 쓴 글을 오늘 여기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임무는 영원한 것(어제나 오늘이나 내 일이나 동일한 것)을 우리 시대의 고유한 언어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영터리 설교자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상을 기독교의 전통적 언어로 치장해서 내놓습니다....그의 생각의 핵심은 당대의 것에 불과한데 외관만 전통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핵심을 현대의 옷을 입혀 가르쳐야 합니다."(C. S. 루이스, 피고석의 하나님, '기독교변증론' 중에서)

3) '번역자'

-세상을 향하여 번역하는 자다, 그릇된 기대와 복을 욕망하는 독자들에게 번역하는 자다

4) '꿈꾸는 리얼리스트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체 게바라)

5) '고민하는 자'(햄릿)

"꿈과 현실 사이에서, 욕망과 해탈 사이에서, 감성과 지성 사이에서, 성자와 창녀 사이에서, 수다와 침묵 사이에서,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내용과 형식 사이에서, 관조와 참여 사이에서,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에서, 정처없이 흔들리면서 고민하는 자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서 갈등하는 사람, 그가 시인이다."(안도현)

6) 광대

누구나 줄을 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재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대신 해주면서도 씹히고 조롱을 받고 야유를 받는 다. 하지만 광대는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한다.

4. 나가는 말

시인이 된다는 것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행동의 끝까지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절망의 끝까지

그 다음 처음으로 썸을 해보는 것,

그 전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왜냐하면 삶이라는 썸이 그대에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작은 구구단곱셈 속에서
영원히 머뭇거리게 될지도 모르게 때문이지

시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밀란 쿤데라, 시집 『시인이 된다는 것』(세시,1999)

내 인생 셈 하는 일 최대한 미루고 미루자
아직 충분히 끝까지 밀고 가지 않았다
아직 더 궁금한 것이 남아 있고
아직 더 실수해도 괜찮을 땀집 있다.
아직 더 흘릴 눈물 고여 있고
아직 더 희망할 긍정도 챙겨 두었다.
인생이, 타인이, 이 시대가 감히 나를 셈하도록 허(許)하지 말자
의심하고 따지 걸고 대들고 부정하라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아직 끝은 오지 않았고
아직 가을은 지나지 않았다.
철지난 태풍을 견디고 나서야 웃을 것이다.

<마침내 시인이 온다> 중에서

“산문은 판에 박힌 공식들로 체계화된 세계, 그래서 목회기도와 연애편지까지도 각서처럼 여겨지는 세계이다. 내가 말하는 시는 운율과 박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도약하는 언어, 가슴과 마찰과 속도로 낡은 세계를 깨뜨려 여는 언어를 의미한다.”(14)

설교는 도덕교육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고, 교리해설도 아니다. 건전한 충고도 아니고, 낭만적 애무도 아니고 유쾌한 유머도 아니다. 설교는 준비된 제안, 지속적인 제안, 놀라운 제안이다(ready, steady, surprising proposa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보내신 세상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극적인 담화, 예술적인 담화, 또다른 대화에 참여를 권하는 담화, 과학 기술의 이성을 탈피한 담화, 추상성을 띠는 존재론에 얽매이지 않는 담화, 구체성을 겁내지 않는 담화!”(13)

“현재에 신앙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그 문제에 새롭게 응답하기를 회피하는 한, 설교자는 해석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명령들을 단조롭게 마감한 채 계명의 전통을 해석하지 않는 설교자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가 누구의 소유인지 기억하라. 제국 앞에서도, 지배 이데올로기 앞에서도, 무시무시한 죽음의 힘 앞에서도 그대 자신으로 살아라. 자기 백성을 위해 제국의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제국의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제국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회사에 입사하여 그대 자신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제국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그대 자신으로 살아라.”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www.mimokwon.com